



고창군은 1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고창부안축협 주관으로 선운산농협과 하서농협으로부터 무인헬기 2대, 공동방제단 4개반, NH 방역단 2개반을 지원받아 동림저수지 주변 농경지 일원에서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펼쳤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조류독감 확산방지 무인헬기 동원 농경지 소독

고창부안축협, 선운산·하서농협 2대 지원받아 일제 방제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1일 무인헬기를 동원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이날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이 주관하고 고창군청, 부안군청, 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태호),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배인태), 선운산농협(조합장 오양환), 하서농협(조합장 김형식)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하여 무인헬기 2대와 NH방

역단 차량 2대, 공동방역단 차량4대를 이용, 동림저수지 일원의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군 보건소에서도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14개 읍·면 자율방역단 560여명이 나서 마을별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박우정 군수는 “행정과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 속에 무인헬기,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해 방역활동을 펼치면서 AI의 조기 종식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AI 조기종식을 위

해 군민들도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내부 이동시 전용장화 착용, 가축임식 자제,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부안축협 김대중 조합장은 “AI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AI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전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전북농협,고창동림저수지서 무인헬기 소독

전북농협은 1일 AI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고창 동림저수지 일원을 농협 무인헬기 2대 등으로 소독했다.

고창부안축협, 고창군청, 부안군청, 농협 고창군지부, 농협 부안군지부, 선운산농협, 하서농협 등은 이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

산 농가를 위해 무인헬기 2대와 NH방역단 차량 2대, 공동방역단 차량 4대를 동원해 동림저수지 일원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전 가금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눔축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도 실시했다.

/황성조기자·food2drink@

전북연합신문

2017년 02월 02일 목요일 005면 경제

전국일제 소독의 날 맞이 AI 퇴치 방역소독 실시

고창 동림 저수지 일원서 농협 무인헬기 등 투입

1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인헬기 등을 이용한 AI퇴치를 위한 고창 동림 저수지일원에서 농협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1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고창 동림 저수지일원에서 농협 무인헬기 등을 이용한 AI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이 주관하고 고창군, 부안군, 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태호),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 농협부안군지부(지부장 배인태), 선운산농협(조합장 오양환), 하서농협(조합장 김형식)등이 참여한 이날 방역에는 무인헬기 2대, NH방역단 차량 2대, 공동방역단 차량 4대가 투입됐다.

이에 앞서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 농가를 돕기 위해 나눔축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를 마련했다.

김대중 조합장은 “AI 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AI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가 완전종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고창군, AI 차단방역 '사할'

무인헬기 동원 일제소독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축산농장과 관계시설, 564개 전마을 안길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 군은 1일에도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했다.

1일 일제소독은 고창부안축협에서 주관해 선운산농협과 하서농협으로부터 무인헬기 2대, 공동방제단 4개반, NH 방역단 2개반을 지원받아 동림저수지 주변 농경지 일원에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펼쳤다.

보건소에서도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14개 읍·면 자율방역단 560

여명이 나서 마을별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박우정 군수는 "행정과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 속에 무인헬기,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해 방역활동을 펼치면서 AI의 조기 종식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AI 조기종식을 위해 군민들도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내부 이동시 전용장화 착용, 가축입식 자제,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전북중영

2017년 02월 02일 목요일
009면 지역



고창군 A차단 일제소독의 날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축산농장과 관계시설, 564개 전 마을 안길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 군은 1일에도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했다.

지난 1일 일제소독은 고창부안축협에서 주관해 선운산농협과 하서농협으로부터 무인헬기 2대, 공동방제단 4개반, NH 방역단 2개반을 지원받아 동림저수지 주변 농경지 일원에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펼쳤으며, 보건소에서도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14개 읍·면 자율방역단 560여명이 나서 마을별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전북농협은 1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고창 동립저수지 일원에서 AI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전북농협, 조류독감 확산 방지 총력

고창동립저수지 AI 차단방역

전북농협은 1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AI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고창 동립저수지 일원에 농협 무인헬기 2대와 NH방역단 차량 2대, 공동방역단 차량 4대 등을 동원해 동립저수지 일원에서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소독은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이 주관하고 고창군청과 부안군청, 전

북농협, 농협 고창군지부, 농협 부안군지부, 선운산농협, 하서농협 등이 참여했으며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소독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창부안축협 김대중 조합장은 "AI 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AI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AI가 완전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고창군, AI 차단방역 '사활'

무인헬기 동원... 동림저수지

주변 대대적 소독활동 펼쳐

고창군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축산농장과 관계시설, 564개 전 마을 안길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 군은 지난 1일에도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했다.

지난 1일 일제소독은 고창부안축협

에서 주관해 선운산농협과 하서농협으로부터 무인헬기 2대, 공동방제단 4개반, NH 방역단 2개반을 지원받아 동림저수지 주변 농경지 일원에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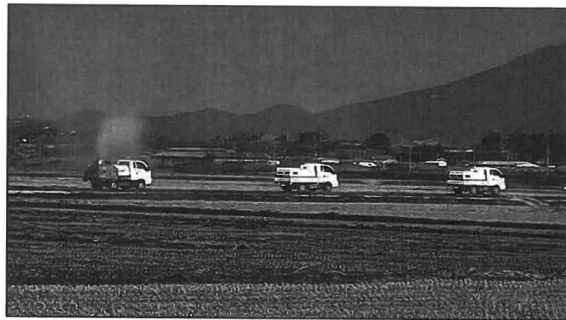
군 보건소에서도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14개 읍·면 자율방역단 560여 명이 나서 마을별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박우정 군수는 "행정과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 속에 무인헬기,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해 방역활동을 펼치면서 AI의

조기 종식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조기종식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부 이동 시 전용장화 착용, 가축입식 자제,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고창군 동림저수지에는 가창오리 등 35여만 마리가 머물러 있으며, 지난해 12월 9일 신탄면 종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군은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박동현 기자



전국일제 소독의 날, 무인헬기 소독 추진

고창부안축협 등 유관기관 참여 농가 방역 홍보

고창부안축협은 설 명절 전후 AI 확산방지 및 종식을 위해 '전국일제 소독의 날'에 동립 저수지 일원 농협 무인헬기 2대를 추가로 참여시켜 소독을 실시했다.

지난 1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이 주관하고 고창군청(부군수 이길수), 부안군청, 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태호),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배인태), 선운산농협(조합장 오양환), 하서농협(조합장 김형식)이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무인헬기 2대와 NH방역단 차량 2대, 공동방역단 차량 4대를 이용해 동립저수지 일원의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전국 소독의 날에는 동립저수지 주변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소독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시했다.

더불어 행사전 '나눔축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도 마련해 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도 실시했다.

/고창=정관진 기자